



김복자

공순이라고 놀림받아도
가족 위해 자존감도 버리고
여자라는 것도 버리고



공순이라고 놀림받아도 가족 위해 자존감도 버리고 여자라는 것도 버리고

생애 개요

김복자는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고두메마을에서 태어나 양동 발산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당시 발산마을은 광주에서도 가난한 동네에 속했으며 양동 천변에 설치된 뽕뽕다리를 건너 일신방직, 전남방직으로 일하러 가는 공장 노동자들이 많이 살던 곳이기도 하다.

정이 많고 성품이 넉넉한 아버지와 앞장서서 마을 일도 도맡아 하시고 논리적이었던 어머니, 위로 오빠를 둔 2남3녀 중 장녀였다. 김복자는 태어난 뒤로 아버지 일이 잘 풀려서 “우리 복자는 복덩이”라며 아버지께서 매우 예뻐하셨다. 동네에서 유일한 기와집에 살았지만 가정형편이 날로 어려워져 동신여고 삼학년 이학기 때 자퇴하였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아이스크림 공장, 어망 공장, 인천의 아남전자 부품공장 등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다 일신방직 공장에 우여곡절 끝에 입사하였다. 고등학교 때 친구가 일신방직 공장에서 여공을 모집한다고 해서 친구와 같이 면접을 보러 갔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키가 크고 체력도 좋아야 하는 체력검사를 겨우 통과하였다.

입사 후에는 15~20kg 솜뭉치를 동그랗게 말아 기계에 넣어주는 작업을 했다. 큰 고무통에 솜뭉치를 싣고 다니는 일은 체력소모가 엄청난데다 숨먼지가 날리는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노동을 해서 받은 월급이 가족들의 생계에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어렵고 힘든 일도 참았고 정말 열심히 일했다.

공장일을 하면서 오빠 친구의 권유로 가톨릭청년노동자회 모임에 참가하였다. 이 모임과 가톨릭 입교를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의미와 가치관 형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공장에서도 동료들에게 가톨릭청년노동자회의 가치를 나누고자 노력하였다. 방직공장 퇴사 후 가톨릭청년노동자회 간사로 일하던 중 5·18 민주화운동을 맞았다. 친구가 결혼식을 하던 날이었다. 5·18은 모든 시민이 벌벌 떨 정도로 온통 공포와 불안감이 가득하였다. 가톨릭청년노동자회 회원들은 광주에서 일어난 비참하고 비극적인 진실을 전국에 알리고자 노력했으며 함께 봉사했던 동료의 어이없는 죽음도 겪었다.

스물일곱, 늦은 나이에 결혼하면서 간사직을 그만두었고 1남 1녀를 낳았다. 결혼생활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고 가정형편도 여유롭지 않았으나 보험, 세신사, 피부관리 등을 하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가르침과 가톨릭 신앙의 영향이었다고 생각한다.

한때 참을 인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지금은 늘 베풀어 주는 자연과 건강한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

유년 시절 산수동 꼬두메 마을의 추억

제 이름은 김복자예요. ‘우리집 복덩이’라고 아버지가 지어주셨대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월급도 오르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겼나 봐요. 나는 1955년 9월 26일 광주 산수동 꼬두메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위로는 오빠가 한 명 있고 아래로 남동생 한 명과 여동생이 둘 있어요. 2남 3녀 중 장녀인 거죠. 아버지는 그때, 지금은 이전했지만 동명동에 있던 형무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하셨어요. 아버지가 절 무척 예뻐해주셨죠. 퇴근 때마다 맛난 걸 사 오셔서 차고 있는 저를 깨우시곤 했는데, 그게 좋고 먹고 싶으면서도 선뜻 일어나지 못할 만큼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였죠.



아버지의 형무관 시절로 막내 여동생이 태어나기 전이다.

아버지는 인자하시고 순하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던 분이셨고, 엄마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엄하고 강하셨습니다. 마치 대장부 같은 기질에 집안 대소사는 물론이고 동네일도 도맡아 했어요. 그래서 양동 발산에서도 우리 엄마를 ‘호랑이 엄마’라고 불렀어요. 아무리 곤란해도, 그때는 미친 사람도 많고 동냥치도 많았지만 오면 밥상 차려 대접했고, 동치미 같은 것도 많이 담귀서 다 나눠주고 바느질도 해주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친구들, 오빠 친구들도 날이면 날마다 우리집으로 왔어요. 풍족하지 않았어도 시래기죽 끓여 먹고 그랬어

요. 꼬두메마을에서는 여섯 살 때까지 살았지만, 거기에서 추억들이 잊히지가 않아요. 좌우에 논밭이 있는 마을이었는데 아마 현재 산수동성당이 있는 위치쯤이 아닐까 싶어요.

어느 때부터가 아버지가 교도관 일을 그만두고 장사를 하셨어요. 어머니와 함께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이 자주 집을 비우셨죠. 이른 새벽에 나가 밤늦게야 돌아오시곤 했거든요. 그때는 여동생들이 태어나기 전이라 오빠, 나, 남동생만 있었는데, 세 살 터울인 여덟 살 오빠가 거의 우리를 돌봐주다시피 했죠. 먹을 것도 챙겨주고 같이 놀아주고 집안일까지 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부터 오빠는 우리 형제들에겐 오빠 이상으로 역할을 해주었지요. 오빠가 밥을 하면 태울 때가 많았어요. 무등산에서 주워 온 나무 땔감으로 아궁이에 불을 피워 직접 밥도 했거든요. 그나마 위에 타지 않은 밥은 나와 동생을 먹이고 자신은 까맣게 탄 밥을 먹곤 했죠. 밤이 되고 캄캄해지면 오빠는 우리가 무섭지 않도록 가운데 누워 한쪽 팔엔 동생을 또 다른 팔엔 나를 눕게 하고 재밌는 얘기를 해주거나 노래를 불러주곤 했는데 그 따뜻한 마음과 기운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풀벌레 소리가 높아지고 달빛이 짙어지면 오빠는 일어나 하나밖에 없는 큰 이불을 방에 짹 펼쳐요. 방의 온기가 식지 않도록요. 그리고 얼마쯤 되면 달빛에 의지해 동생과 나를 앞세우고 부모님 마중을 나갔어요.

깜깜한 밤 동구 밖 황토 언덕길을 타박이며 걷는 어린 세 남매. 저는 어둠이 무섭기도 했지만 뒤에 오빠가 있다는 든든함과 곧 엄마를 만나리라는 설레임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얼마큼 걸어 어둠에 잠긴 숲이 시작되는 지점에 이르면 멈춰 서서 숨죽이며 부모님을 기다리곤 했죠. 그러다 타박타박 발소리와 함께 어머니 아버지 그림자가 나타나면 얼마나 반갑던지…… 우리 세 남매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치 몇 년 만의 상봉처럼 달려가 어머니 아버지 품에 안기곤 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허름했지만 브로크 담과 양철대문의 기와집

내가 일곱 살 무렵, 아버지가 친척 소개로 일신방직에 취직이 되었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직장과 가까운 양동 발산이라는 마을로 이사를 하였고요. 그때 발산마을은 초가지붕과 움막집 판자집이 대부분일 만큼 낙후된 동네였어요. 그래도 우리집은 허름했지만 브로크 담과 양

철 대문을 한 기와집이었어요. 마당에 뽕뿌샘⁵¹이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조석으로 우리집 샘 물을 사용할 만큼 정을 나누며 살았죠. 좁은 골목 옆으로 판자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깡패, 양아치들도 많았고요. 뭘, 저의 사촌, 오촌 언니들도 방을 얻어갓고 살았는데 전부 다 판잣집 구멍 구멍마다, 아무튼 사람 몸이 들어갈 수만 있으면 사람이 살았죠.

마을 건너편에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을 연결해 주는 뽕뿌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그 쪽방 거기에 시골에서 올라온 전남방직, 일신방직 여공들이 다 살았어요. 그래서 그 회사 다니는 언니들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언니들이, 일은 힘들어 보였지만, 일한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데서 굉장히 밝았어요. 월급을 제대로 받았으니까, 정식으로. 그때는 여자들이 회사에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또 일반 큰 회사도 다닐 수 없었고. 그 여공 언니들이 그때 나를 엄청 예뻐하고 인사하고 그랬는데 속으로는 반가우면서도 부끄러워서 생콩거리며 고개 돌리고 외면하고 그랬어요.

공부하랬지 누가 썩 캐 오랬나

1966년 아버지가 갑자기 일신방직에서 강제 퇴임을 당하게 돼요. 엄마는 늑막염을 앓고 있었고 여동생도 이름 모를 병에 걸려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아버지마저 직장을 잃게 된 거죠. 그때부터 부모님은 온갖 모진 일을 하셨죠. 그 하천변, 광주 천변에 있는 자갈을 파서 체에 걸러 그 자갈을 판 돈으로 살기도 하고, 또 그러지 않으면 실을 엮어서 노끈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푸대(부대, 자루)를 만드는 노끈이에요. 말하자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떡장수, 바구니장수, 이불장수 외에도 많은 일을 했죠. 하남에 있던 조상님 산소 옆 개간지에다 수박과 참외, 무 농사를 지어보기도 했는데 하필 가뭄이 들거나 한해로 모두 망쳐서 남의 손에 다 넘어가고요. 그나마 몇 푼 가지고 오다 버스에서 소매치기를 당해 몽땅 잃어버렸대요. 우리 등록금 줄 거였는디……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자랐고, 저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구열 높은 어머니 덕분에 수피아여중에 입학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우선으로 여겼거든요.

51 펌프를 이용하여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샘.

양림동에서 수피아여중까지는 차비도 없어 걸어 다녔어요. 아마 걸어서 한 시간 이상 걸렸을 거예요. 고등학교는 수피아여중에서 수피아여고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일부러 신설학교인 동신여고를 간 거예요. 신설학교라 장학생을 많이 뽑는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장학금은 받지 못했어요. (웃음) 동신여고도 역시 한 시간 이상을 걸어 다녔어요. 새벽에, 네시에 일어났어요. 부모님이 장사로 집에 안 계시니 큰 딸인 제가 아침을 했거든요. 먼지투성이인 솜가루 땀감⁵²으로 아침을 지어서 동생들 먹이고 등교하면 종종걸음을 쳐도 맨날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쩌다 친구들이랑 어울려 학교를 오가는 순간들이 생기면 너무 좋았죠. 지금도 그때 친구들이랑 연락하고 지내요.

마을에서는 우리집만 가방을 들고 교복을 입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던 거 같아요. 오빠도 조대⁵³ 오년제 전문대에 다니고 있었고, 나는 고등학교에 남동생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교복이라 해도 정상적인 교복이 아니고 얻어다 입거나, 그것도 빵구가 나서 꿰매서 입고 그랬죠. 한번은 교복을 다림질하다 바지 허벅지 부분을 크게 태웠는데 그것을 꿰매 입고 다녀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하고 우쭐했으니까요.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은 하지 못했어요. 집안 형편이 더 어려워지고 납부금을 못 내는 횡수가 늘어나니까 도저히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남동생은 중학교 삼학년, 저는 고등학교 삼학년 때 그만뒀죠, 오빠도 군대에 갔고……. 여동생 둘도 중학교를 제대로 못가고 임동성당에 있는 성심중학교라고, 김정고시를 봐서 입학했어요. 거기도 오빠 친구분이 소개해줬고요.

결국 73년, 고3 되고 얼마 후 자퇴를 한 거죠.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집안 상황을 아는 나이가 됐잖아요. 그때 어머니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요. 중학교 삼학년 때 간호교육을 받으면 독일에 간호사로 파견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듣고 또 야간상고를 권유한 이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엄마는 “우리 복자는 끝까지 공부시킬 것”이라고 거절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썩을 캐고 와서 엄마에게 썩 바구니를 내밀었더니 “공부하랬지 누가 썩 캐 오랬나”며 바구니를 던져버린 일도 있었거든요. 굶어 죽는 한이

52 일신방직에서 버리는 솜 잔해물을 땀감으로 사용.

53 조선대학교를 줄여 부르는 말.

있어도 공부해야 한다던 엄마였으니까요.



동신여자고등학교 1학년 때 김복자

광주천 복개사업으로 강제철거를 당하고

고교를 자퇴하고 곧바로 사회에 첫발을 디뎠죠. 오월부터 칠월까지 삼개월간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일했고요. 광주어망도 다녔어요. 바다에서 쓰는 그물망 있잖아요. 광천동에 그거를 짜는 공장, 광주어망이라고 있었는데 한 육개월간 다녔어요. 거기선 너무 힘들었어요. 일이 힘들다기보다 거기서 주는 반찬이, 김치랍시고 나온 것이 빨간색도 아니고 황토색에 가까운 완전 소금 덩어리였는데 먹을 수가 없었어요. 더글더글하던 소금 덩어리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때는 다 못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도 감지덕지했고 몇 년씩 다닌 사람들도 있었는데 나만 못 견디고 나왔죠.

그 다음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잠업검사소에서 일했는데, 거기서는 누에 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검사하는 곳이었어요. 저는 그 일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검사만 하면 정시

에 퇴근할 수 있어서도 좋았지만 누에들이 매일 자라는 과정을 보는 게 참 신기했어요. 적성에 맞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오래 할 수 없었던 게, 잠업이라는 게, 말하자면 그 봄부터 여름이 끝나면 딱 중단을 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한 사개월 정도만 일이 있는 거죠.

1974년 구월 중순경, 우리 가족은 광주 천변 발산에서 거의 쫓겨나듯 이사를 해야 했어요. 그때가 스무 살이었죠. 광주천이 여름이 되면 홍수가 나고 물난리를 겪으니까 박정희 정권 시절 정화사업과 복개사업을 위한 정책으로 거기 살던 사람들을 강제철거를 한 거예요. 다들 판자촌이어도 보상이 있었지만, 우리집은 제대로 보상을 못 받았나 봐요. 철거인력이 동원되어 집을 부수고 무너뜨리는데, 부모님은 포크레인 속으로 들어가 저항하고 그랬어요. 그때 함께 살았던 이웃들은 철거민이 되어 광천동 산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용봉동이나 전대 농대 주변으로 모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됐죠. 저는 그때 장티푸스로 열나고 아무것도 못 먹고 기어 다닌 상태에서 철거를 당했어요. 우리집은 어쩔 수 없이 용봉동 하천변으로 와 천막을 짓고 생활했어요. 내가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이웃이 “이거라도 먹어보라”고 주는데 시래기국 이에요. 지금도 그 시래기국 맛과 정은 잊을 수 없네요. 그러다 같이 발산에 살았던 건축업자한테 의뢰해서 정부 보조금 좀 나온 것과 하천에서 돌 캐고 날라서 포도시(겨우) 집을 지었어요. 그때 지은 집에서 지금도 오빠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시월에는 전자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학원을 다녔어요. 그때 인천에는 일할 사람이 없었던지 호남권에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일시적으로 전자제품에 대해 가르쳤어요. 그 학원을 일개월 수료하면 인천에 있는 아남전자에 다닐 수 있었거든요. 십일월부터 아남전자에서 일 했는데, 그때 받은 월급이 한 구천 원 정도였을까? 그거를 거의 90% 집으로 보냈어요. 그 나머지로 쌀도 사긴 했지만 그것도 아끼느라고 주변에 밭에서 김장용 무를 몰래 뽑아다가 먹었던 기억도 나고……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집에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온 거예요. 오빠 친구가 살레시오 수녀원에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빨리 내려오라 한 거죠. 내려왔더니 수녀원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가 어디 없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고등학교 때 친구가 왔어요. 일신방직에 모집공고가 있으니 “우리 면접 한번 보자”고 그래요. 여공직 뽑는다고. 그 친구는 고등학교도 졸업했고 집도 잘 살았고 키도 엄청 컸거든요. 사실은 내가 더 가야 될 상황이었죠. 가서 보니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담당자가 앞에 서더니 체력이 좋고 키가 백육십 센치 이상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해요, 면접을 다 볼 수 없으니

까. 저는 키가 백오십이 센치거든요. 근데 친구랑 같이 앞으로 나갔어요. 머리를 쓴 거죠. 키를 쥔 때 신발을 벗잖아요.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몰래 꽃밭(까치밭)을 딛고 해도 백육십에 못 미쳤어요. 그런데도 내가 억지로 억지로 해서 합격을 했어요.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것이 엄청 강했나 봐요. 돈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해서 무를 뽑아 먹고 그랬는데 안 들어가야 되겠어요? 키도 크고 그랬던 친구는 떨어지고, 나는 쪼그맣고 노동 조건이 맞지 않았는데도 오만 몸짓 다해서 합격한 거죠. 그때는 노동자를 뽑기 때문에 학력과 상관없이 일만 잘하고 힘이 세고 체력만 좋으면 됐거든요. 막상 합격을 하니 기분이 좋다가보다 ‘이게 나의 필연인가’ 싶더라고요. 사무실이나 그냥 먼지 안 나는 곳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렇지만 생활이 너무 힘들니까, 그때 동생들이 중학교도 못 가고 검정고시 합격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어서 ‘마음을 비우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여기다’ 그랬죠.

그때 아남전자에서 내려올 때 급작스럽게 내려오느라 월급을 제대로 다 못 받고 왔어요. 회사에서 월급을 준다고 해서 올라가 보니 안 주고 다음에 오라는 거예요. 근데 포도시 올라갈 차비만 갖고 간 거라 내려올 차비가 없는 거예요. 생활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심 고심하다가 회사 정문으로 가서 함께 학원에 다녔던 동료들이 보이면 “나 차비가 없으니 차비 좀 빌려줘, 빌려줘” 해서 내려왔던 기억. 그래서 일신방직이 나에게서 무겁고 힘든 거였지만, 들어가야 되는 상황, 그랬었던 것 같아요.

솜뭉치가 온몸에 달라붙는 꿈을 아직도 꾸고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방직공장에 막 입사해서는 목화 솜뭉치를 동그랗게 모아 넓적하고 둥글게 마는 작업으로 솜뭉치가 15~20kg가 되었는데 이것을 기계에 올리는 작업을 했어요. 계속 기계를 돌려야 하니깐 숨을 계속 넣어주고 또 이 솜뭉치를 수레에 싣고 다니면서 작업을 했어요. 온몸에 숨이 다 묻고 공장바닥에도 숨이 날려 다녔지만 마스크도 없이 하루 종일 그 작업을 하고, 육개월 정도 이 과정을 맡아 했어요. 그 뒤로는 내 키보다도 큰 고무통에 쌓여진 솜뭉치를 실어 나르는 작업을 했고요. 나보다 더 큰 고무통을 끌고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체력이 좋아야 되고 키도 커야 됐던 거죠.

솜타래가 쌓이면 한 줄에 열개씩 해서 사십개 정도 실타래가 만들어져 기계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기계 속도에 맞춰서 계속 넣어야 되고 중간중간에 숨을 이어주는 작업을 사년 동안 했어요. 작업은 삼교대로. 잠자는 시간도 부족하고 몸무게도 적게 나가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위험한 작업들은 기계를 멈추고 열고 청소하고 해서 위험한 일은 적었지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작업이었어요. 한 부서에서 기술이 숙련되어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한 공정에서 사오 년 동안은 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일을 했어요. 지금도 꿈에 솜뭉치가 온몸에 달라붙어 있는 꿈을 꾸는데 ‘아, 지금은 안 다니지’ 하면서 안심하면서 깨어나곤 합니다.

1970년대는 통금시간이 정해져 있고 공장일이 삼교대라 통금시간 전에 출근할 때는 부모님이 데려다 주시거나 했고, 지금같이 건물들이 들어차 있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겼지요. 공장을 다니면서 성당을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는 임동성당에서 일신방직으로 이어지는 철도길이 있었어요. 한번은 성당에서 공장으로 가는 철도길을 밤에 혼자 걸어간 적이 있어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시간을 물어보는데 하마터면 그 남자한테 봉변을 당할 뻔했어요. 죽어라 악을 쓴 덕에 인근 주민들이 몰려와 겨우 봉변을 피할 수 있었던 만큼 그 당시에 여성이 혼자 다니는 밤길은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웠어요.



일신방직 공장에 다니던 시절, 3공장 차장님과 동료들

칠팔십 년대에는 여공이라고도 안 했어요. 공순이, 공돌이 그랬지. 그때는 본인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밖으로 표현을 대부분 안 했어요. 공순이라고 놀림을 받아도 다 참아내고 그랬죠. 나는 이렇게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자존감도 버리고 또 여자라는 것도 버리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당당했지 인간으로서 당당함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한번은 오빠 지인이 선물해주신 쉼타를 공장에서 도난당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 옷감을 짜깁기했던 거라서 독특했고 눈에 확 띄는 쉼타였는데 그만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퇴근할 때 누가 내 쉼타를 입고 가지 뭐예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랑 붙잡아서 내 쉼타 내놓으라고 했더니 딱 잡아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구입했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 근데 그때 내가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비싼 쉼타도 아닌데 얼마나 입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싶어서요. 내가 우니까 그 동료도 따라 우는 거예요. 참 이렇게 우리들이 정말 어렵게 살았네요. 퇴근할 때는 몸수색도 했는데 당시 상황이 못 먹고 제대로 입지 못했던 시절이라 그런지 옷이나 소지품에서 숨뭉치도 나오고 실타래도 나오고 그랬어요.

자긍심을 갖고 정당한 권리를 찾자

일신방직에 입사하고 나서 오빠 친구가 가톨릭에 대한 선교를 하다가 내가 몇 번이나 거절을 하자, “이런 모임이 있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 참석해보라”고 해서 한번 가 보았더니 듣기만 해도 굉장히 신선했고, 자기 이야기를 스스로없이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감동과 공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처음 중흥동성당 내 모임에 갔을 때 주로 호남전기 사람들이 많았고 구두담이, 갠생원, 장애를 가진 사람,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각자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스스로없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어요. 모임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 나갈까’, ‘상대방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다음 주제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등을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이 모임에 꼭 참석하고자 마음 먹고 성당에 입교를 하게 되었어요. 이를 계기로 임동성당 칼 신부님이 이끄는 교구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굶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내 품팔아서 집에다만 주는 단순한 노동자의 삶이 아니라 더 나아가 노동자로서 삶의 가치, 인간

의 존엄성, 내가 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방법들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같은 노동자들끼리 서로 우애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보급하고자 각 교구의 신부님들이 요청을 해서 이런 모임을 마련할 수 있었고 지도신부님이 따로 계셨어요.



임동성당의 부활절 영세 후 칼 신부님, 신자들과 함께(1976. 4. 18)
교구모임에서는 노동자로서 삶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이었던 만큼 탄압과 감시가 심했어요. 이러한 모임에 참석하고 활동하는 것조차도 빨갱이로 몰아세우며 형사들이 쫓아오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했어요. 회사에서는 이런 나를 강제로 퇴사시키기 위해 부서를 강제 이동시키거나 어린 조장을 시켜 발로 차는 일도 있었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꾀꾀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 또한 이 모임과 활동을 통해서였어요. 수없이 어려운 과정을 거친 뒤에서야 드디어 동료들도 인정해주었고, 주 멤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삼개월에 한 번, 육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동료들을 초대해 일반회라는 모임도 꾸려가게 되었어요. 레크레이션 시간도 마련하는데 우리가 직접 강사가 되어 식순도 짜고 행사도 진행하면서 동료들의 친목도 모는 물론 ‘임동 섹션’이라는 산문집도 발간하게 되었죠. 한 번씩은 자신들이 쓴 내용을 산문집으로 발간했으니 얼마나 보람이 있었겠어요. 또 산문집을 쓰지 않은 사람들은 수련회처럼 하루 모임을 가지면서 자기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J.O.C 새싹팀 토론회



J.O.C 지도자 훈련회(왼쪽에서 세번째)



J.O.C 하계수련회(화순)



전남 일신방직 새싹팀 회합 후

박정희 정권 시절, 노동자모임은 빨갱이로 몰리기 일쑤였다. 김복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새싹팀의 회합도 조심스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 모임의 취지는 '젊은 시절에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노동하고 그 노동의 가치를 알아가는 것, 될 수 있으면 좋은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일하자'였어요. 지금의 노동절은 5월 1일이지만 당시에는 3월 10일이었는데 그 노동절을 기념하기 위해 광주의 유명인사들을 초대하고 큰 강당에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백 명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가한 행사였기 때문에 형사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감시할 정도로 대규모 행사였지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또 자신의 노동에 대한 자부심과 회사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만든 행사였지요.

내가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정향자⁵⁴를 따라 함께 다녔고, 내 주변에 일신방직, 전남방직, 태창양말 등에서 막 노동조합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는 노동자계층 확대와 더불어 더 많은 지역으로도 확대가 되는 시점이었지요. 각 사업장마다 버스로 화순, 장성까지 돌아다녔는데 노동조합을 새로 조직하고 그런 것은 정향자 언니가 주로 했고, 저는 회원들에게 인간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전달하면서 고양시키고 단련시키는 일들을 했어요. 당시 가톨릭청년노동자회 모임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자긍심을 갖고 그 회사에서도 얼마 이익을 갖고 있어야 하고 또 일하는 우리는 정당하니 권리를 찾자는 것이 활성화되어서 전국적으로 모임이 더 튼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권 여자회장으로 뽑혀 일을 하는 와중에도 형사들이 쫓아다니기도 했어요.

일신방직에 다녔을 때 내 월급은 138이라는 숫자로 기억에 남는데 아마 십삼만팔천 원였나 봐요. 팔천 원 정도였던 아남공장 임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졌어요. 야간근무를 할 때는 수당 등이 있어서 좋았고 비록 엄마에게 다 드려야 했지만 묵묵히 내 일을 했고 오로지 퇴직금만 내 몫으로 남겨둘 수 있었지요. 방직공장 시절은 집안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부모님께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의 형편이었기 때문에 월급을 받아서 기뻐하기보다는 집안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무했던 기간 모두 월급을 타면 저는 거의 써보지도 못하고 바로 엄마에게 다 드렸고요. 제가 드린 월급으로 엄마는 생활비와 여동생들의 학비로 썼지요.

그렇게 만 사년을 다닌 방직공장을 그만두자, 마침 가톨릭청년노동자회 풀타임 간사 자리가 비어 있어 간사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외국에서 보내준 월급인데 그때 십만 원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돈은 엄청 크게 느껴졌지요. 간사 일을 하면서 결핵환자를 위한 봉사나 다른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협력과 자력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일일찻집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일일찻집은 삼개월이나 육개월에 한 번씩 열어 지역 노동자들을 초대하고 모임의 취지를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54 당시 전남제사노동조합지부장, 현 노동실업광주센터 대표. 1970년대 민주노동운동 현장과 투쟁을 기록한 『어둠의 시대 불꽃이 되어』의 공동집필자이다.

결혼을 하면서 간사도 그만두게 되었고⁵⁵ 장년회 모임인 천지애회에 참여했어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모임을 하는데 지금도 회원들 중에는 봉사활동이나 교육활동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청년노동자회⁵⁶의 관찰, 판단, 실천이라는 정신이야말로 우리들이 지금까지 활동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5·18때 시신을 닦아주던 회원의 죽음을 겪고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때 국제예식장에서 열두시엔가 막 결혼식이 끝나고 대인시장으로 오는데, 군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청년들을 때리고 달려가고 그러는데, 그걸 목격하고는 큰 충격을 받았지요. “아고, 젊은이들 다 죽네” 하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오들오들 떨고. 그 와중에 결혼한 친구집에서 저녁에 피로연을 한다고 해서 겨우 다녀왔는데 엄마에게 붙잡혀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중앙여고 삼학년이었던 여동생이 집에 돌아오지 않아 온 식구가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전남대 도서관에도 들러보았더니 도서관 안이 핏자국으로 흥건하니 도저히 참혹해서 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다행히 며칠이 지나 집에 돌아온 동생 이야기는 중고등학생들도 같이 참여하자고 해서 며칠 동안 같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바깥소식들은 완전히 차단된 채로 화순에서 어쩔니 담양에서 어쩔니 임신부를 어쩔니 등 들리는 소문들만 말 그대로 흥흥했고 밖으로 다닐 수도 없었어요.

도청이 장악된 뒤 우리는 가톨릭센터로 달려갔는데 우리 회원 홍순권⁵⁷이라는 사람이 어이없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평소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한 팔이 없는 장애인임에도 상무관에 안치된 시신을 닦아주고 사람들에게 물도 날라주고 그랬던 사람이 총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홍순권씨의 어이없는 죽음에 ‘이 소식을 먼저 우리 회원들에게만큼은 알리자’ 해서 북동성당으로 모였어요. 편지도 쓰고 선언문도 쓰고 그랬어요. 우리들은 홍순권씨를 5·18 구묘역

55 결혼하면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56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Young Christian Workers, YCW). 1958년에 설립된 가톨릭 노동청년단체. 관찰(See), 판단(Judge), 실천(Act) 방법론을 바탕으로 젊은 근로자들이 근로의 가치와 근로자로서 보람을 일깨우기 위하여 조직함.

57 홍순권은 1960년 생으로 당시 19세 대입 준비생이었으며 북동성당에 다니면서 초등부 교리교사 활동 중 5월 27일 도청에서 총상으로 사망했다.

자리에 묻고 버스도 다니지 않았던 길을 며칠씩 다니면서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송홍철 지도신부님이 홍순권씨의 묘비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라고 써주셨어요.

당시 광주에 이 비극적인 상황들을 외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해서 지도신부님들을 비롯해 우리는 전국 모임에 나가 이 엄청난 사실들을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재야권 인사들, 신부님들이 앞장서 주셨고 이후에는 기독교 송백회⁵⁸ 모임의 황석영 작가, 가톨릭 천지애회 모임의 문병란 교수 등이 주도하는 임동성당 내 모임들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때도 있었습니다.



일신방직 뒤편에서 차명숙씨와 함께

58 송백회(松柏會)는 고 문병란 시인이 ‘소나무처럼 푸르고 잣나무처럼 곧게 이 사회를 위해 헌신하자’는 의미로 짓고 활동했던 광주·전남 최초의 민주여성단체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한 축을 담당했다.

수녀가 되고 싶었지만

내가 이런 데만 다니고 하니까 처음에는 결혼을 안 하려고 했어요. 수녀가 되고 싶었는데 내가 무슨 고급스럽게 수녀를 할까 싶어서 부산에 있는 마리아수녀회라고 빨래만 해주는 봉사단체에 가려고 했어요. 나자렛 집이나 노인요양시설도 알아보고 갱생원도 알아보고 했는데 갱생원은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해서 거의 포기를 했죠. 그러다 선만 신세 번을 보다가 지금 남편을 만나 삼개월 만에 결혼을 했네요. 아주 사연이 많아요. ‘이 사람하고도 인연이 아니다’ 싶었는데 한 동네에 사는 남편 이모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내 나이도 적지 않고 해서 어머니도 반대 안 하시구요.



수녀가 되고 싶었던 김복자는 맞선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식을 올렸다(1981. 5. 10).

처음 상하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따로 살았던 시동생 셋을 함께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 셋을 데리고 살았죠. 그 좁은 상하방에 시동생 셋과 우리 부부가 같이 살았는데 세탁기, 냉장고도 없던 시절에 빨래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공간이 비좁아 내가 어디 편하게 누울 자리도 없었어요.

이층집으로 옮겨서도 뽀 양말만 해도 빨래줄에 빠곡이 널려 있을 정도였죠. 그래도 막 결

혼해서 한 이개월 정도 우리 부부만 살았을 때가 생각나요. 한여름에 남편이 아이스크림이 녹을까 봐 옷 속에 넣어 온 걸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당연히 다 녹아버렸죠. 날도 더운데.

결혼생활은 생각만큼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아이들 둘을 연년생으로 낳고 시동생들과 같이 생활하고 하면서 남편이 한눈을 팔더라고요. 그래도 먹고살라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가 차마 성당에는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내 탓이오 내 탓이오’만 하는지 도저히 못 다니겠다고 신부님께 말씀드렸죠. 아이들 키우면서 아르바이트로 세신사 일도 했는데 오만 구박을 받으면서도 목포, 부산까지 다니면서 했어요. 그렇게 해서 피부관리실도 열게 되었고 한때는 아주 크게 번성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도 그거 다 날리고 이혼하려고도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부부로 살고 있네요. 아이들한테도 상처 주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고 부모님께도 그 어려웠던 거를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동생들도 “언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버티고 사느냐”면서 많이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동정도 해주고 그랬어요. 바로 밑에 시동생의 도움과 여동생들의 도움도 정말 컸지요.

산이 높다 해도 쳐다보고 부러할 거 아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어머니와 버스 타고 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한번은 선운사에 간 적이 있었는데 “넷물은 얇고 산은 높으니 보기 좋제잉?” 했더니 “아야, 넷물이 아무리 얇아도 얇보지 마라, 글고 저기 산이 높다 해도 그르케 너무 쳐다보고 부러할 꺼 아니다”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속담과 격언을 한 번씩 말씀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 틀린 게 없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지킬라고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우리 형제들 몸에도 배어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고생을 했어도 항상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해서 이만큼 잘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내가 올해 예순일곱이에요. 살아오면서 많은 일을 겪었지만 내가 제일 잘한 일은 우리 아이들을 낳은 거예요 남편에게도 물어보니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우리 딸이 손주를 낳았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결혼할 무렵부터는 백팔십도 달라지기도 했고요. 또 종교를 가지고 있기를 잘했다는 생각, 참을 인(忍)자를 내 마음에 칼을 꽂듯이 그렇게 아픔을 참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자연이 주는 감동이 참 좋고 감사합니다. 태양, 바람, 흠냄새, 공기와 새소리가 들려주는 것에 감사하고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인간이기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여, 자신을 위해 당당하게 살아요

방직공장에 다니면서 우리 여공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그 힘든 일과 편견을 이겨내고 참아내고 돈을 벌었어요. 그 월급으로 가족이나 형제를 위해 많이 썼고요. 그래서 당당합니다. 한창때, 청년기를 가족을 위해 바쳤지만 제 인생관이 성립되는 시기였고 전혀 후회하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 손해를 많이 보고 살아온 제가 여성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더는 희생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당당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광주여성구술채록단과 인터뷰 모습

생애연보

- 1955년(1세) 광주시 동구 산수동 꼬두메마을(현재 산수동 성당 자리)에서
2남 3녀 중 둘째이자 장녀로 태어남
- 1960년(6세) 아버지의 일신방직 입사로 양동 발산마을로 이사
- 1962년(8세) 광주양동초등학교 입학. 발산마을 철거로 광주 천변으로 이사
- 1968년(13세) 수피아여자중학교 입학
- 1971년(16세) 동신여자고등학교 입학
- 1973년(19세) 동신여고 3학년 때 자퇴
자퇴 후 5월~7월까지 아이스크림 제조공장 근무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6개월 간 광주어망에서 근무
- 1974년(20세) 2월~5월까지 잠업검사소 근무
9월, 광주천 복개공사로 강제 철거를 당한 후 용봉동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뒤 하천변으로 이사.
10월, 인천 부평 아남전자 입사를 위해 1개월간
전자조립과정 학원 수료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인천 부평 아남전자 근무
- 1975년(21세) 일신방직 입사. 광주가톨릭청년노동자회 가입
- 1976년(22세) 광주임동성당에서 세례 받음
- 1979년(25세) 4년 3개월 근무 후 일신방직 퇴사
- 1979년 11월 광주가톨릭노동자청년회 간사 근무
- 1981년(27세) 결혼을 사유로 가톨릭청년노동자회 간사 퇴임
5월 10일 결혼
- 1983년(29세) 첫째아들 출생
- 1984년(30세) 둘째딸 출생
- 2021년(현재) 피부미용관리숍 운영